

[목회자 모임]
독생자를 주셨으니

2018년 5월 11일 이현래 목사님

오늘은 유치원 때 배운 성경구절을 다시 한 번 반복해보고 싶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말씀이다. 요한복음 3 장 16 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이것을 아무것도 모르고 받아들였다. 좋은 말씀이니까 받아들이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고 몰라서 그랬지 무거운 짐이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는데 나는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다. 이처럼 사랑하사 한 것이 어떻게 사랑한 것이 이처럼 사랑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데 나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이처럼 사랑하사 했는데 그래도 그냥 넘어갔다. 그런 것이니까 넘어갔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도 알고 보면 감당하기 어렵다. 결국 십자가에 내어놓았다는 말인데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또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 굉장히 부담이 되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 이 말씀이 상당히 쉽겠지만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상당히 부담이 되었다. 누구는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가? 다른 사람은 얼마나 받았는가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그것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믿었다. 그것을 보고는 믿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게 그냥 생각한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알았던 것이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 이렇게 알았던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서 좋은 분이다.

우리 집에서 조금 내려가다 보면 참 좋은 하나님이라고 교회에 써 붙여 놓았다. 참 좋으신 하나님 교회도 참 좋은 교회다. 하나님이 참 좋으시다고 하는 뜻이 굉장히 많을 것인데 우리는 좋다는 말이 좋으니까 좌우지간 참 좋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한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나쁜 하나님이다. 성을 다 멸하고 이런 곳도 있고 믿지 않으면 멸망이라는 것이다. 믿으면 영생이지만 반대로 믿지 않으면 심판이다. 다음 구절이 그렇다. 독생자를 믿지 않으므로 저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빛이 세상에 왔지만 빛을 거부하고 옳은 일을 행한 자는 빛으로 오지만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빛을 거부한다고 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자연히 악을 행하는 자가 된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말씀이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기도 하다. 그런데 우리가 별로 감각 없이 그냥 그렇게 지내왔던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 정말로 좋은 하나님으로, 정말로 감사한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

나도 멋모르고 교회를 다니다가 청년기에 들어오면서 교회는 열심히 나가는데 어떤 확신이 안 생겼다.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이런 기본적인 문제가 의심이 되기 시작했다.

이것을 알아보려고 관계된 종교서적을 읽어봐도 이 사람들은 다 안다는 것이고 별로 고민한 흔적이 없다. 그리고 고민했어도 지금은 다 믿는다는 이야기이지 어떻게 해서 믿게 됐다는 말이 없다. 그래서 아주 답답했다.

그래서 신학교를 다니는 친구와 그 문제를 가지고 밤새도록 토론을 했다. 나는 믿고 싶은데 도대체 모르겠다 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알고 믿는 것이 아니고 믿고 나면 된다는 것이다.

나는 어떻게 좀 알아야 믿지 모르면서 어떻게 믿느냐? 밤새도록 조금도 진보가 안 되고 평행선이었다. 해결은 되지 않고 그 친구는 성격이 좀 단순한 친구이고 그래서 이런 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러다가 막판에 물론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주일학교 일도 하고 교회 일은 열심히 했지만 속에는 그렇게 되어서 세례 받으라는 것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막판에 이런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도 평범한 말씀이고 너무도 또 많이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1:1).”**는 말씀인데 그런데 새삼스럽게 그 말씀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씀이 ‘아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졌다.

물론 그때 내 환경도 궁지에 몰려 있는 환경이었고 그래서 내가 내일 일도 모르는 사람이 뭐 하나님을 이러쿵저러쿵 할 자격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예. 나는 당신의 피조물입니다. 내일 일도 모르는 인간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

그러고 나니까 맘이 후련해지고 뭔가 풀려지는 것 같더라. 실타래가 영클어진 것이 슬슬 풀리는 그런 기분이었다. 원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헝클어져있던 생각이 정리가 되는 것 같더라.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세례를 받겠다고 자원을 해서 세례를 받았다.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보이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때 세례의 뜻도 모르고 장로교회니까 교회를 다니면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는 것이 당연한 행사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도 그것이 좋게 보였다.

나도 받아야 되겠다. 왜 그런 생각으로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저것을 받으면 뭐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 아 내가 받아야 되겠구나. 교회에서 하는 일이면 내가 다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갑자기 바뀌진 것이다. 이것은 내가 이렇게 밖에 설명을 못하겠다. 그것이 왜 그리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답답하던 생각이 풀리면서 그렇게 되었다. 그때부터 확신이 있는 믿음이 있는 교회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러고 나니 그 다음에 조금 있으니까 크게 좋았는데 그러면 나는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는가? 그 생각이 드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아무 할 일이 없고 아무 쓸 데도 없고 이런 형편이고 갈 길도 막혔는데 무엇 때문에 나를 지어 놓았습니까? 이런 기도가 자연히 나오는 것이다. 전에는 아예 그런 생각이 없었다. 모르는데 왜 만들어 놓았는지 그런 생각이 나겠는가? 그런데 그때 자연스럽게 그런 기도가 나온다. 왜 나를 만들어 놓았을까? 무엇 때문에 만들어 놓았을까?

그런데 귀신처럼 밤새도록 토론하던 친구가 그 때 신학교를 졸업하고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편지가 왔다 .어떻게 내 마음을 알고 편지를 보냈는지 모르겠다. 요즘 어떻게 지내는가?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내가 솔직히 말을 했다. 내가 보이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나를 지어놓았는지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고 했더니 대번에 편지를 받고 너를 죽을 자리에서 살려 주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일할 생각이 없느냐? 있으면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내가 길을 주 선택해주겠다. 그렇게 갑자기 편지가 온 것이다. 한 번도 그런 편지를 쓰지 않았는데 그 친구가 어떻게 생각하고 그 시점에서 그런 편지를 썼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날부터 이십일 만에 신학교를 가게 되었다. 아무 준비도 없는 사람이었다. 또 내가 신학교를 가야겠다는 생각도 못해봤고 심지어는 그런 환경이 전혀 아니니까 가고 싶다는 생각도 못해봤다. 아예 그런 생각 자체를 해 본적이 없다. 그리고 이십일 만에 갔다. 결정이 되었다고 오라고 해서 이십일 만에 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듣고 있다가 내 생각을 듣고 있다가 꼬집어 낸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 않겠는가? 몇 년을 왔다 갔다 했는데 갑자기 내가 왜 나를 만들어 놓았습니까? 했는데 그 편지가 왔다. 그 기간이 얼마 안 되었다. 나를 왜 만들어 놓았을까? 나는 무엇 때문에 있을까? 이 생각을 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런데 귀신처럼 알고 편지를 보냈다. 좀처럼 편지를 쓰지 않는 친구다. 글씨가 악필이라 편지를 잘 하지 않고 편지를 써도 큰 종이에 다섯 줄이 넘어가지 않는다. 그런 친구인데 갑자기 나에게 편지를 하겠는가? 이렇게 본다면 귀신처럼 알고 온 것이니까 정말로 성령이 인도했다고 그렇게 할 수 밖에는 길이 없다.

시작을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그 한 구절 때문에, 창세기 1장1절 그 한 구절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늘 그 구절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너무나 큰 축복이 있는 말씀이다. 출발이 너무 큰 축복이다.

나한테는 그것이 복음이었다. 다른 것은 다 모르는데 그것 때문에 부름 받았으니까 나에게도 복음이다.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 맞기는 다 맞는 말씀인데 우리에게 빛이 비추지 않으면 모른다. 무슨 말인지 모른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는 것을 모른다. 그 이후로는 그 말씀을 들으면 ‘아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연상이 되는 것이다. 그전에는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었다.

그리고 내가 참 이상한 것은 병원에서 퇴원해서 나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했는데 내가 살아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구나. 참 좋은 하나님이네. 기적적인 하나님이네’

이런 생각을 안 해 봤다는 것도 이상하다. 그때도 교회를 다니기는 다녔는데 말이다. 한 번도 그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너는 하나님이 살려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생각이 없느냐는 것이다. 나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다.

저 사람은 죽을 사람인데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어서 그래서 살아난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다. 나만 그런 생각을 안 해봤다.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러니까 감사가 있겠는가? 감사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혜택을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뭐를 감사를 하겠는가?

창세기 1장 1절을 받아들이고 난 후에 아 그렇구나. 그 친구 편지를 받고 난 후에 그랬는가? 그때 그랬던가 생각했다. 내가 생각해도 참 이상하다. 왜 그것이 내가 병원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냥 객담 검사를 하면 균 검사를 하면 균이 나온다고 했다. 그래서 두 달 동안 누워 있다가 검사를 했는데 균이 안 나온다는 것이다. 결핵균이 그렇게 쉬운 균이 아니다.

그러면 무슨 약을 써서 그랬냐 하면 그것이 아니다. 집에서 이것저것 약을 써서 내성이 생겨 쓸 약이 없었다. 침대에 누워있는 것 말고는 아무 것도 없었다. 그런데 두 달 동안 균이 어떻게 나오지 않겠는가.

처음에 나오지 않으니까 검사를 하고 또 검사를 했다. 집균검사라고 담을 모아서 하는 검사도 했는데 안 나왔다. 그러니까 퇴원을 하라는 것이다. 지금 의사들에게 말을 해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 결핵균이 그렇게 쉽게 없어지는 균이 아니다. 최소한도 지금도 약을 일 년 이상 먹어야 한다. 그런데 두 달 동안 누워있기만 했는데 균이 없어졌다고 하니 믿을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베풀었구나. 이 생각을 못했다. 옆에 있는 친구가 나하고 나이가 같다. 그런데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두 달 동안 집에 있다가 병원을 가니까 죽고 없었다.

그 친구는 약을 계속 먹고 있었는데 균이 떨어지지 않아서 죽고 없더라. 그런 죽음의

사이를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런 데서 감동을 받아본 적이 없다. 지금 내가 생각해도 이상한 사람이다. 그렇게 감각이 없었나? 아무리 내가 신앙이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되겠나 이렇게 생각한다.

손형사라고 남부경찰서 공간계 형사인데 대명동 살 때 젊은 사람들이 3~40명 동숙을 했다. 집이 좁아서 옆에 집을 빌려서 먹고 살았다. 그래서 이웃집에서 고발을 했다. 아무래도 이상한 사람이다. 그때 한참 학생들이 데모하고 이럴 때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나 몰래 출생지, 원 고향을 한달 동안을 돌고 조사를 했다.

조사한 다음에 나를 찾아와서 내가 이리저리 해서 목사님을 조사를 했는데 가는 데마다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죽을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어서 산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이다. 나만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건이다. 참 이상한 일이다.

그래서 그 형사가 그것을 내놓고 고발이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나도 만일 교회를 나오면 목사님 교회를 나오겠습니다 하고 했다. 이상하게 전도가 되었다. 그 후로 퇴임을 했는데 전화가 없어 연락을 못하고 있다.

우리 교회에 상당이 나왔다. 유*형 형제랑 이*화 판사도 잘 안다. 항상 셋이 나와서 형사와 도둑놈과 판사 셋이 나왔다고 늘 유*형이 그랬다. 그런 사람이다. 교회에 나오려면 나 있는데 나오겠다. 그렇게 내가 감각이 없는 사람이다. 내가 어떤 감정이나 이런데 동요가 안 되는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곰곰이 생각해도 아무래도 사람이 한 것 같지 않다.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그렇다.

나는 철학 전공한 분이 몇 분 계신데 어려서 철학 책을 몇 권을 봤는데 무슨 사상이 들어왔느냐 하면 절대로 광대가 안 된다. 나는 인생 광대를 하지 않겠다. 나는 관객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 이것이 철인들의 생각이다. 절대로 자기는 섞이지 않고 객관자가 되어서 관찰하겠다. 어려서부터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관찰자만 되지 나는 몰랐던 것이다. 절대로 나는 세상 사람들이 움직이는 대로 같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무대에 올라가서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무대에 올라가서 춤추고 있다. 그리고 그 무대에 올라가서 춤추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알게 되었다.

앉아서 저것은 뭐고, 저것은 뭐고 이렇게 관찰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행복한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고 거기서 같이 뒹굴고 뛰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불행하든지 행복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관찰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지금은 생각하면 나는 그렇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무대 위에서 뛰고 싶다. 같이 뛰고 싶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면 복음이 안 될 말씀이 없다. 그런데 사실은 모른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것을 모른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믿는다고 했는지 모르겠다. 믿는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별로 영향을 주지 못했다. 깊이 모르고 있기 때

문에 그냥 믿기는 믿었지만 그것으로 내 인생이 바뀌지고 이런 것은 없다. 그냥 그렇게 믿은 것이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보고 믿고 하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자기에게 안 부딪쳐서 그런 것 같다. 부딪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데 안 부딪치니까 그렇지 않다. 사역하는 사람들은 다 잘 믿겠거니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의가 없으면 다 잘 믿고 있겠지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과연 뭐가 달라졌는지, 변화가 되었는지 이것을 봐야 되지 그냥 다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었다는데 어떻게 주었는지 모른다. 그냥 세상에 보내주었다고 생각하지 어떻게 줬는지 모른다. 주셨다는 말이 결국 십자가에 내 놓았다는 말이다.

주셨다는 말을 찾아보니까 제물이 된다는 말도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제물로 주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제물이 되게 했다. 자기 아들을 제물로 주었다는 말이다. 우리에게 제물로 주었다는 것이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고 오병이어로 오천 명을 먹이고 여기서 우리가 제물이신 그분을 볼 수 있는가? 없다.

제물 되신 분이 만일 있다면 십자가에 달려 있는 분밖에는 우리에게 제물 되신 분이 없다.

그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물로 주었다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를 보고 또 그냥 잘못 봐도 하나님이 나한테 나를 대신하는 제물이 되게 했구나. 그렇게 보아지지 않는다.

제일 어려웠던 것이 그것이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었다는 이것이 제일 어려운 문제였다. 어떻게 나를 위해 죽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 내가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지었는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내 죄를 위해 죽었다. 그러면 그것을 믿으면 내 죄가 용서 받는다,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되었다.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들이 있겠지만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이라고 한다. 아주 무서운 말이다. 어떻게 들으면 좋은 말이지만 어떻게 들으면 무서운 말이다.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채널이 없으면 소화되기 어려움, 아주 어려운 중에도 어려운 말씀이다. 유치원에서부터 배웠으니까 쉬운 말이 아니고 아주 제일 어려운 말이다.

민수기 21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을 하다가 독사에 물렸다. 우리를 데리고 와

서 여기서 죽게 하겠냐? 시시한 음식은 못 먹겠다고 이렇게 불평을 하다가 뱀에 물렸는데 그때 모세가 기도를 하니까 구리 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그것을 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뱀을 만들어 달았는데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다 살았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다 그 전에 안 본 사람들은 많이 죽었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다 살아났다는 것이다. 이것이 구약을 읽으면 비밀이다. 어떻게 뱀을 쳐다봤는데 독사에 물린 독이 없어지냐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석했다. 독사의 독이 독 없는 뱀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살았다. 구리 뱀은 독이 없다. 그래서 독 없는 뱀이라고 해석을 했다. 그 말도 그럴듯하긴 한데 독 없는 뱀이라는 말을 이해하기 어렵더라. 물론 예수님이 독 없는 뱀이다. 우리가 독 없는 뱀을 쳐다보면 산다. 그 예수를 보면 산다는 말이 말은 맞는데 확실하지 않다.

내 안에 독이 들었는데 독 없는 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면 내 안에 사탄의 독이 들어왔다. “네가 이것을 먹으면 정녕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같이 된다는 독이 들어와 있다. 모든 사람 속에 그 독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이 독 때문에 다 바벨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독 없는 뱀을 만나면 산다는 말이 그 말인데 왜 독이 없는가를 알기 어렵다.

왜 예수는 독이 없는가? 독이 없는 뱀인가?

물론 말씀이 좋은 말씀이고 순종하는 분이니까 거역하는 말을 들었다가 내가 순종하는 말을 듣고 내가 그것을 토해내고 내 속에 독이 없어졌다고 그렇게 말 할 수도 있기는 있다. 그런데 뭔가 좀 부족하고 그런데 장대에 달린 뱀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라고 비유를 했다.

요한복음 3 장 16 절을 말씀하기 전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3,14).**” 그래서 그렇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달릴 것을 말하고 있다. 장대에 매달린다는 말이니까 십자가에 달린다는 말이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더라. 아주 많다.

부흥회 같은데 가보면 울고불고 난리다. 나는 그때 어쩔 줄을 몰랐다. 옆에서는 울고 불고 난리인데 나는 도저히 감동이 안 되고 나를 위해 죽었다는 감동이 안 되니까 아주 곤란하다.

부흥회 첫날은 아주 곤란하다. 그것이 시간을 보내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어떻게 그렇게 우는지 통곡을 하고 하는지 뭣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다. 그런데 아마 그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를 것이다.

아마도 자기가 개인적으로 도덕적인 죄를 졌던지 그런 죄를 저서 통회하고 있는 것이 지 진짜로 뱀에 독에 물린 그것 때문에 울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생각에는 그렇게 운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이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운 사람은 내 생각에 별로 없지 싶다. 왜냐하면 그것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이다. 내가 저지른 일은 알지만 내가 저지르지 않은 일을 어떻게 알겠는가?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다는 데 나는 선악과를 먹은 일이 없다. 그런 경향이 전혀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겠는가?

다 다른 문제로 울고 불고 하는 것 같다. 다른 문제로 말이다. 여기에도 울어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다. 아마 나만 안 울었던 것 같다. 다 울었을 것이다. 나는 다른 죄를 모르겠더라 말이다. 시시한 죄를 지었겠지만 그것 때문에 죽으실 일은 없지 않은가? 시시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말이 안 된다. 정말로 그분이 목숨을 던져서 나를 구원하려고 했던 그런 사건은 없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깊이 알고 보니까 우리 속에 거역의 본성이 들어왔다. 하나님 같이 되려는 거역의 본성이 들어왔다. 우리는 위치를 이탈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축복된 자리를 이탈했다.

그렇게 좋은 자리를 주었는데 배신한 셈이다. 유일한 자리를 줬는데 그것을 버린 것이다. 그것은 사형에 해당 된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았다는 이유가 창세기 1장 26절에 이유가 없다면 살았다고 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그것을 버렸으니까 죽은 게 아닌가?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정녕) 죽으리라(창2:17).”

800년 이상 살았지만 그것은 죽은 것이다. 산 것이 아니다. 쓸모 없어져 버렸다. 쓸데 없는 인간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하나님 같이 된 사람들이 달려가서 모인 종착역이 바벨이다. 그 사람들이 이루어 놓고 성취해 놓은 것이 바벨이다.

바벨은 강한 자들이 모인 곳이다. 가인의 후예들이 모인 곳이 바벨이다. 지금 세상이 가는 곳이 그렇다. 강한 자들이 달려가서 바벨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알고 보면 바벨을 건설하려고 달리는 것이다.

그런데 바벨이 건설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없다. 바벨이 성공하면 하나님은 코가 납작해지고 사탄은 코가 튀어나오고 이렇게 되게 생겼다. 이것도 참 아이러니 한 일이다. 세상이 잘 되어야 할 것인데 그렇게 잘 되면 이것이 멸망이라는 말이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은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계18:2).”** 그것이 무너지지 않고서는 새 예루살렘이 올 수가 없다. 우리에게서도 그 바벨이 없어지지 않고서는 새 예루살렘이 올 수가 없다.

결국 하나님 같이 되려는 인간의 종말은 바벨론이다. 가는 길이 그 길이니까 그렇다. 그들이 그랬다. 우리가 모이사, 힘을 합하자. 그리고 성을 쌓자. 흠어짐을 면하자. 망

대를 높이 세워서 하늘에 이르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빛내자. 이게 딱 세상이 아닌가? 그냥 그대로다. 이것은 하나의 계시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렇게 말한다.

장대에 달린 낫 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 사람은 바벨로 가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 예수는 위대한 분이라고 생각한다.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적을 행하고 못할 것이 없고, 십자가에서 뛰어 내릴 수도 있는 이런 분으로 생각하고 따라왔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생각하기에 예수를 따른다.

만약에 십자가에 달려서 뛰어 내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누가 예수를 믿겠는가? 내가 그 말을 한 다음에 교회에서 반응이 참 이상했다. 나는 아주 간단하고 쉽게 이해 하라고 했는데 반응이 여러 가지다. 이방인들은 사람이 당연히 십자가에 매달면 죽지, 이렇게 간단하게 받아들였다.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얼른 안 받아들였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이 말은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오다가 저분이 아닌데... 우린 저런 분을 따라온 게 아닌데... 이렇게 한 것이나 똑 같다. 제자들이 십자가를 버리고 간 것이나 똑 같은 것이다.

이것은 심각한 일이다. 교회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다 고기 잡으러 가 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가 낫 뱀인가? 독이 없는 뱀인가? 예수님이 위대하신 것이 독은 아니지만 사람들을 잘못 이끌어 갈 수 있다. 예수는 이런 분이다. 돌로 떡도 만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왜곡되고 만다.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적이 나왔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천적으로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안 풀리는 것이다.

이번에 내가 봄 집회에서 십자가에서 그 둘이 해체되었다는 말을 했더니 그 덕분에 이해된 사람이 많다. 해체 되었다는 말을 듣고, 육신으로서 예수와 하나님과 합해진 예수가 같이 붙어 있으니까 예수를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것이 십자가로 해체되었다고 했더니 ‘아, 그렇고 그렇지.’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조금 쉬워졌다. 하도 안 돼서 내가 그 말을 한 것이다. 하도 안 돼서 십자가에서 해체되었다고 한 것이다. 해체 시키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된다. 해체 하지 않으면 뛰어 내리지 못한 예수를 설명할 수가 없다.

예수님도 연합체다. 왜 육체가 필요했던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요1:14).” 이 말은 연합했다는 말이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창1:26).”** 이것도 연합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이것이 붙어 있는 한 사람들에게 혼동이 되어서 도저히 안 돼서 할 수 없이 해

체시켰다고 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해체식이다. 사람과 하나님을 해체한 해체식이다. 그러니까 좀 알아듣겠다고 했다.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그분을 보면 그분은 우리와 다르다. 그분은 하나님과 연합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와 연합했는가? 사탄과 연합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 원래 사람은 똑같다.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결국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 하나님이 지은 사람은 한 사람뿐이다. 예수님이 아예 선재해서 하늘에서부터 사람이었는가? 그것이 아니다. 하늘에서부터 사람이 아니다. 땅에 와서 사람과 연합했기 때문에 사람이다.

설령 선재 했더라도 육신을 입은 그분으로 선재한 것은 아니다.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있었다. 그렇다고 베드로가 본 예수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다는 말은 다른 분을 이야기 한 것이다. 연합하기 이전에, 육체와 연합하기 전에 있는 분을 이야기 한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은 처음에 의심이 되어서 여러 번 원어를 찾아보고 했다. 그냥 육체다. 좋은 말인 줄 알았더니 그냥 육체라는 말이다. 육체란 말은 창세기 6장에서 **“그들이 육신(육체)이 됨이라(창6:3).”**고 했다. 내가 영원히 저들과 함께 하지 않으리라고 했다.

나의 신이 영원히 육체가 된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으리라고 했던 그 육체를 말한다. 그런데 이 육체와 연합을 하니까 딴 사람이 되었다. 분명히 사람인데 하나님 같이 보였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사람은 원래 지어질 때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표현하도록 지어진 존재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지었으니까. 무엇을 표현하도록 지어졌다. 우리 스스로는 그냥 산 혼 밖에 안 된다. 아무 것도 아니고 그냥 기능만 가진 존재다.

마치 자동차가 모든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사람도 그렇다. 모든 기능을 다 가지고 있다. 운전하기 전까지는 아무 것도 아니다. 기름을 넣어서 움직이기 전까지는 아무 것도 아니다. 벤츠가 됐든지 포니가 되었든지 간에 똑 같다. 아무 것도 아니다.

기름이 들어가서 돌아야 뭐가 되는 것이다. 차에 좋은 차 나쁜 차가 왜 있는가? 돈이 왜 비싸고 싸냐? 타 보면 안다. 좋은 차를 타면 조용하고 몸이 편안하다. 싼 차를 타면 덜덜거리고 몸이 괴롭다.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은 좋은 차를 탄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차라도 기름이 안 들어가면 아무 것도 아니다.

하나님도 육체와 연합했는데 그 육체가 분리되고 나니까 우리와 똑 같은 육체가 되는데 분리되고 난 육체를 보면 우리 육체만 못하다. 나는 팔팔 살아있는데 그 사람은 죽어 있다.

제자들이 볼 때 얼마나 처량했으면 그냥 달아났겠는가? 그런데 그 사람 속에서 선악

과 사탄의 형상을 빼 버리면 똑 같다. 그래서 나는 살았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죽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불쌍하다고 생각한다. 베드로가 가면서 안 그랬겠는가? 안 됐다. 사람은 참 너무 좋은 사람이었는데... 정말 안 됐어, 십자가에 달려서 뛰어내리지도 못하고 죽다니 너무 안 됐어... 그런데 자기는 어떤 사람인가? 자기도 똑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모든 사람을 해체시키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다. 내가 사탄과 연합된 것을 해체시키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고 연합된 것을 해체시키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다. 예수를 버리고 갈 때는 자기들이 훨씬 나은 사람이었다. 예수는 지금 죽어서 매달려 있는 사람이고 나는 달려가는 사람이 아닌가? 고기라도 잡으러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죽은 자와 산 자는 너무나 차이가 많다. 성경에 산 무엇이 죽은 무엇보다 낫다는 말이 있다. 비유로 하면 산 쥐새끼가 죽은 고양이보다 낫다는 말이 되지 않겠는가? 죽으면 아무 것도 아닌 것이다. 제자들 눈에 죽어 있는 예수가 어떻게 보였겠는가? 아무 것도 아니지 않은가? 자기보다 훨씬 못한 그런 존재가 되어 버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 주셔서 그것이 바로 나라는 것을 보게 한 게 아닌가!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도 저렇게 되는 데 내가 선악과와 연합해서 살았다고 하겠는가? 그 자리에서 온 인류를 하나로 만들었다는 것이 놀라운 지혜라고 나는 생각한다.

하나님이 왜 대답하지 않았을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이까(마27:46).” 함에도 불구하고 왜 대답이 없었을까? 나 때문이다. 우리 때문에 그랬다. 예수님은 해체될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우리 때문에 해체된 것이다. 그러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가 된다. 나 때문에 독생자가 죽은 것이다. 안 죽어도 될 분이 죽은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안 죽고 있으니까 그렇다. 내가 해체되지 않고 있으니까 아들이 해체된 것을 보고서야 우리가 비로소 ‘나도 그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정도로 우리가 완악한 사람이다.

우리가 어떻게 알겠는가? 내가 그런 인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겠는가? 난 그래도 이런 사람이다. 난 그래도 저런 사람이야. 지식으로 능력으로 무엇으로 다 자기를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예수 앞에서 평가할 수 있는가? ‘나는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내가 지혜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예수 앞에 가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이 아무 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순전히 나 때문에 죽은 것이다. 그분은 죽으실 필요가 없다. 하나님과 갈라질 필요가 없었다. 분리될 필요가 없는 분이다. 우리 때문에 갈라진 것이다. 결과적으로 볼 때 그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갈라지게 된 것이지 안 그랬다면 우리는 갈라질 수 없다.

공자님도 인생에 무엇인가를 더해야 된다고 하였다. 석가모니는 인생을 탈출해야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분들에게서 절대로 우리의 실체가 발견되지 않는다. 그분들은 그것을 몰랐다.

어찌하면 그것을 극복해보려고 돌아서 낮게 해보려고 했지 근본을 끄집어내려고 생각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온 인류를 한 자리로 모을 수 없다. 누구도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말이다. 쉬운 말 같은 데 알고 보면 세상에 이것보다 어려운 말이 없다.

그런데 또 알고 보면 이것보다 쉬운 말이 없다. 예수만 보면 이보다 쉬운 말은 없다. 예수를 못 보면 이보다 어려운 말이 없다. 이것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우리는 감당 못한다.

믿으면 영생이고 안 믿으면 심판이고 멸망이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 우리가 심판이 무엇이고 멸망이 무엇인지 알아야 세상에 나가서 이 말을 해 줄 수 있을 게 아닌가? 지옥에 간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요즘 세대 사람들에게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라고 해서는 아예 안 통한다. 웃기는 사람이 되고 말아 버린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죽으심 안에서 사탄과 연합한 사람, 선악과를 먹고 사탄의 본성과 연합한 사람, 그 사람이 해체될 때 우리는 예수와 하나다.

그때부터 예수가 가는 대로 우리도 간다. 그가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간다. 그가 있는 곳이 내가 있는 곳이다. 그가 얻은 것이 모두 내 것이다. 내가 따로 무엇을 받을 수 없다.

구약 시대에는 무엇을 주고받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다음에 에서가 고기를 가지고 왔다. ‘내가 당신의 큰 아들이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하는 말이 ‘아이고 내가 축복을 다 줘서 줄 게 없다.’고 하였다.

그 말이 참 이상하다. ‘아니 그렇게 고약한 놈이 어디에 있나. 내가 다시 네게 축복해 주마.’ 이럴 것 같은 데 ‘아이고 내가 축복을 다 해줘서 너에게는 줄 게 없다.’고 하는 것이다. 꼭 물건 주듯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것이 구약의 원칙이다. 구약은 이렇게 주고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신약에는 주고받는 것이 없다. 내가 그분 안에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지 무엇을 주고 따로 받고 이것이 없다. 구원을 주고 받고 이런 것도 아니다. 그 안에 있으면 구원이고 밖에 있으면 멸망이고 그런 것이다.

그분과 하나된 자리를 이렇게 저렇게 설명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분과 내가 하나인 자리가 아니면 신약에는 아무것도 없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어떤 혜택이라 할지 그런 것이 다소 올 수가 있지만 그것은 예수 안에 있는 축복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그분과 하나된 것보다 더 완전한 축복이 없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은 결혼이다. 둘이 결혼한다는 이야기이다. 결혼하면 신랑 것이 다 신부 것이 되고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내 것 따로 네 것 따로 있는가? 그래서 부부간에 싸우면 손해다.

저도 손해고 이겨도 손해다. 한쪽이 지면 한쪽만 지는 것이 아니고 둘이 같이 지는 것이다. 한쪽이 이기면 둘이 다 같이 이기는 것이다. 이것은 싸워서 해결 될 문제가 아니다. 남편 것이 아내 것이고 아내 것이 남편 것인데 싸워서 되겠는가.

이번에도 집사람과 무엇을 하다가 좀 토닥거렸는데 토닥거리다 보니 이길 것도 질 것도 없어서 이번에는 집사람이 먼저 와서 싸워봤자 내 것도 아니고 당신 것도 아닌데 그만두자고 했다.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너무 큰 축복이다.

나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고 생각한다. 예수를 여기서 모르면 그냥 걸핍기 한다고 생각한다. 걸 핍기, 수박 걸 핍기, 다 믿고 다 천당 가고 마음대로 하겠지만 걸핍기에 불과하다.

그런데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언제인가? 지금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러면 다 된 것이다.

우리는 지금 예수를 보니까 그 안에 내가 있다. 그 안에 여러분이 있다. 그러면 그분이 또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내가 그분 안에 있으니까 떠날 수 없다. 이 연합은 이제 가를 수 없다.

산소와 산소끼리 어떻게 가르겠는가? 산소와 수소가 결합되어 있으니까 가르지는 산소만 있으면 산소를 어떻게 가르겠는가? 갈라도 산소 가르지 않아도 산소다. 물을 가지고 자동차를 가게 할 수 있다는데 왜 못하는가? 분리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한다. 인격을 분해하는데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 것이다.

예수 한 사람이니까 그렇지 예수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엄청난 비용이다. 하나님으로서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엄청난 비용이다.

하나님 아들이 먼저 분해되어야 우리가 분해될 것이니까 우리가 분해되기 위해서 엄청난 값을 지불한 것이다.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 아들을 분해시킬 방법이 있겠는가? 방법이 없다.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인 아들을 분해시킬 방법이 없다.

전기가 엄청나게 들어가야 물이 수소와 산소로 분리된다고 한다. 기름 값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쓸 수가 없다고 한다. 기름이 없으면 할 수 없이 그것이라도 쓰겠지만 지금은 할 수는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 못쓴다고 한다. 수소 자동차가 되면 얼마나 편리하겠는가? 가다가 모자라면 수도꼭지만 들이대면 되는데 아주 간단하고 좋다. 그런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런데 이 비용을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분해된 것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를 파괴시켜서 사탄을 갈라내야 되는데 이것이 안 갈라진다. 믿음으로 가르려고 했는데 갈라지냐 하면 안 갈라진다. 충성으로 가르려 하니 갈라지느냐 안 갈라진다. 들어붙어서 안 갈라진다.

수소와 산소가 안 갈라지는 것처럼 안 갈라지고 끝까지 붙어 다닌다. 예수님을 분해시키는 그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저절로 분해되도록 만들어 놓았다. 이것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뜻이다. 독생자를 제물이 되게 했다.

그런데 이 안에 그 말씀 안에 포함이라는 말도 들어 있다. 주셨으니 하는 말에는 포함이라는 말도 들었다. 신기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분해되면 나는 그 안에 포함된다. 나도 분해되어서 나도 그 안에 포함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불하신 대가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했다는 의미이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분리된 것을 보고도 믿지 않으면 그것은 빛이 왔는데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 다음 구절들을 보면 빛이 왔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왜냐하면 악을 행하기 때문에 빛을 거부한 것이라고 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끝을 보자. 끝장을 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조금도 거리가 없도록 예수와 나 사이에 전혀 거리가 없도록 끝장을 봐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말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 너는 무엇을 받았느냐, 너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하면 그 근거를 내 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만큼 밖에 안 된다.

우리를 보고 온 사람들은 나만큼 밖에 안 된다. 내가 수박 겉핥기 하면 그 사람도 수

박 겉핥기하고 내가 참외 겉핥기 하면 그 사람도 참외 겉핥기 한다. 나 이상 되지 않는다. 내만큼만 되면 된다 하면 좀 안심이 된다.

우리가 초창기에 우리 형제들이 조금 거칠었다. 생명대로 한다고 좀 거칠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본 사람들이 저것이 생명대로 한다고 저래서 되겠나. 젊은 애들 모여서 사람 다 버린다는 이런 비난이 왔었다.

그런데 내가 전혀 그 말에 요동이 안된 것은 저 사람은 나를 보고 왔다. 나를 보고 온 사람들이니까 지금은 뛰든지 날든지 간에 결국 나를 보고 온 사람들이다. 내가 그렇지 않으면 될 것이 아닌가? 내가 그렇지 않으면 되니까 전혀 내가 그것 때문에 혹시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적이 없다.

혹시나 잘못되면 어쩌나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다. 왜냐하면 그냥 교회를 온 것 이라면 모르겠지만 나를 보고 따라 왔으니까 최소한 나만큼 될 것이다. 나를 보고 온 사람들이 멀리 가겠는가? 멀리 안 간다. 우리만큼 된다. 나를 따라온 사람은 나만큼이다. 그 수준이 그 교회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그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에게 달렸다.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일도 하고 뭐도 할 수 있는데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엡4:13).”

이것을 나는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생각했다. 알고 보니 그것은 개인적인 말이 아니고 교회로 완성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처음에 나는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을 했다. 그것도 도움이 되었다. 잘되었는가 모르겠다.

잘 경청해주어서 감사합니다.